

한국 장수지역의 혁신 네트워크

Innovation Networks in Longevity Area of KOREA

박삼옥(서울대학교 지리학과, parkso@snu.ac.kr)

송경언(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kusong2030@freechal.com)

한국 장수지역 경제활동의 생산과 혁신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한국 장수지역 중의 하나인 전라북도의 순창군과 전라남도의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등의 대표적 제조업체와 연구개발기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제활동의 공간적, 산업적 연계와 혁신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경제활동의 생산 네트워크와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 공간적 연계는 원료구입과 노동력이용이 해당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적 연계는 원료구입 단계의 제조업과 농업간 연계와 제품판매 단계의 제조업과 관광업간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품판매에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고찰은 순창군의 고추장 제조업과 담양군의 대나무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순창군 고추장의 경우 대기업의 표준화된 제품은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소규모 업체들은 집단화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고추장관련 연구기능도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장류연구소가 설립중인데, 이는 자금, 연구인력, 지식 등의 제공을 위해 지역과 지방 및 국가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Virtual Innovation Cluster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담양군의 대나무관련 산업의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중국산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바이오 제품화와 죽공예품의 고급화로써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대나무 산업의 혁신 네트워크는 지방대학과의 밀접한 연계에 의해 강화되었고,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신제품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식기반 경제의 지역혁신체계 개념을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네트워크 구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여러 주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혁신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점은 새로운 경제공간의 출현에 대한 고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